

임시 선발 홍건희 출격



“지난 시즌 최다 이닝 소화 큰 자산…체력 관건”

지난해 5강 좌절시킨 두산전서 첫 선발승 도전

진화하는 KIA 홍건희의 선발도전이 시작된다.

불편의 필승조로 활약했던 홍건희가 ‘임시 선발’ 타이틀을 떼고 선발진 한 자리를 차지한다. 임창용의 가세로 불펜에 힘을 실은 KIA는 홍건희를 선발로 해 남은 시즌을 풀어야 할 생각이다.

지난 시즌 KIA 마운드의 수확 중 하나는 홍건희였다. 상무 시절 이렇다할 활약을 하지 못했던 그지만 지난 시즌 팀에 복귀해 38경기에 나와 82이닝을 소화하면서 불펜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위기 상황에서는 선발로 이동해 마당쇠 역할을 하는 등 홍건희는 복귀 후 첫 해를 절반의 성공으로 남겼다.

올 시즌에는 ‘피어 불러’라는 이름이 어려지지 않은 홍건희가 됐다. 지난 시즌에도 15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뿌리기도 했지만 스피드에 비해 힘이 떨어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올 시즌 홍건희는 목직한 직구를 구사하고 있다. 스피드는 150km를 넘나든다.

홍건희는 “스피드는 신경 안 쓴다. 던지면서 볼 끝에 집중하려고 한다. 릴리스 포인트를 앞으로 가져가면서 중심이동을 할 때 힘을 신게 되니까 공에 힘이 더 들어간 것 같다. 힘으로 승부하려고 한다. 힘이 있을 때는 코너워크에 신경 쓰기보다는 직구로 적극적으로 자신있게 승부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물흐르듯 부드러운 투구폼에도 변화를 주며 진화를 시도했다. 와인드업 자세에서 클러브를 뒤로 넘기면서 한 바자 타이밍을 늦춰 공을 던지고 있다.

홍건희는 “와인드업 할 때 템포가 느린 것은 있지만 타이밍과 제구에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홍건희의 진화에 가장 큰 원동력은 ‘경험’이다. 지난 시즌 홍건희는 입단 후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 선발승을 눈앞에 두기도 하는 등 만족스러운 피칭을 하기도 했었고, 상대의 한방에 무너진 실패의 날도 많았다. 그 경험들이 2016시즌 홍건희의 큰 자산이 됐다. 특히 지난 시즌 막바지 실낱같은 5강 희망을 안고 나섰던 두산전 쓴 기억도 홍건희를 키우는 보약이 됐다.

홍건희는 “1회 긴장하는 게 있는데 지난해에는 막판에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했고 중요한 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체력이 관건이 될 것이다. 지난해 선발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긴장도 됐었는데 많이 던져본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힘에 경험까지 붙은 홍건희의 진화, 그의 책임감도 눈에 띈다. KIA의 시즌 첫 끝내기 승이 나왔던 지난달 29일 홍건희는 3이닝 퍼펙트의 피칭으로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37개의 공을 던졌던 그는 9회 승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연장전까지 책임질 생각이었다. 그리고 홍건희는 등판 3일만인 지난 2일 넥센전에서 선발을 맡았다. 선발대란 속 임시 선발이 된 그는 4이닝을 2실점으로 막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이상을 소화했다. 박수받을 피칭이었지만 홍건희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었는데”라며 아쉬워했다.

진짜 선발로 새로 출발하게 된 홍건희는 이번 주말 지난 시즌 마지막 등판 상대였던 두산을 만나게 된다. 5강 진출의 꿈이 무산됐던 그날의 기억을 곱씹으면서 진화한 홍건희가 생애 첫 선발승을 노린다. /김여울기자 wool@

퓨처스 올스타도 있다고요

KIA 이준영·전상현·신범수·황대인 15일 고척돔

KIA 이준영, 전상현, 신범수, 황대인이 퓨처스 올스타전을 찾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오는 15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16 KBO 퓨처스 올스타전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퓨처스 올스타전은 입단 5년차(2012년 입단) 이하 선수들에게만 출전 자격이 주어지며, 타자의 경우에는 올 시즌 40경기 이상 출장 기록이 있는 선수만 퓨처스 올스타전 무대를 밟을 수 있다.

신협상야구단 박치양 감독이 남부리그(KIA, 상무, 롯데, kt, 삼성, 한화), 경찰야구단 유승안 감독이 북부리그(경찰, 고양, 두산, 화성, SK, LG)를 지휘하며 양 팀에서 24명씩 총 48명의 선수가 선발됐다.

남부리그에서는 KIA의 이준영·전상현·신범수·황대인과 함께 김선기·이승진·권희동·한동민(이상 상무), 한승혁·강동관·김대륙·최승훈(이상 롯데), 류희운·박세진·문상철·김민혁(이상 kt) 권정용·이성규·정두산·최선호(이상 삼성), 김범수, 김재영, 주현성, 이동훈(이

상 한화)이 출전한다.

북부리그는 이상민·이종석·윤대영·박준혁(이상 경찰), 김학성·최상인·박광열·도태훈(이상 고양), 고봉재·최용재·서예일·김민태(이상 두산), 정용준·주효상·김웅빈·송우현(이상 화성), 조영우·이건욱·최정용·김동엽(이상 SK), 김대현·박성준·안익훈·홍창기(이상 LG)가 올스타로 선정됐다.

퓨처스 올스타전은 미래 KBO 리그의 주역이 될 스타들을 미리 만나보는 자리다. 퓨처스 올스타전 MVP 출신인 넥센 채태인(2007년), 롯데 전준우(2008년), NC 김중호(2010년), 한화 하주석(2015년) 등은 각 팀의 주전으로 맹활약 중이다. 특히 전준우는 2013년 KBO 올스타전 MVP를 차지하며 퓨처스·KBO 올스타전 MVP를 모두 차지한 유일한 선수다.

퓨처스 올스타전의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 예매 홈페이지(ticket.interpark.com)와 ARS(1544-1555), 스마트폰 인터파크 티켓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김여울기자 wool@



깨어난 호날두 “우승하고 올겠다”



유로 결승 ‘호우주의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7일 프랑스 스타드 드 리옹에서 열린 웨일스와 유로 2016 준결승전에서 선제골을 터트린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1골 1도움…웨일스에 2-0 승

유로 통산 9골 ‘최다 타이’

포르투갈 12년만에 결승행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에서 포르투갈 대표로 출전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오랜만에 ‘축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걸맞은 활약을 펼쳤다.

호날두는 7일 프랑스 스타드 드 리옹에서 열린 웨일스와 유로 2016 준결승전에서 1골·1도움을 기록하면서 포르투갈의 2-0 승리를 주도했다.

이날 호날두는 0-0으로 맞선 후반 시작 5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 크로스가 날아오자 수비수를 제치고 정확하게 머리로 받아쳤다. 이 골로 호날두는 유로 통산 최다 골(9골) 기록을 보유한 프랑스 축구의 ‘레전드’ 미셸 플라티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앞서 3차례의 대회에서 6골을 기록한 호날두는 이번 대회에서 3골을 추가했다. 결승전에서 골을 넣을 경우엔 플라티니의 기록을 깨게 된다.

호날두는 후반 8분엔 도움을 기록하면서 스코어를 2-0으로 벌였다. 호날두는 페널티지역 외곽에서 골문 앞으로 크로스를 낮게 깔아줬고, 나니가 방향만 살짝 바꿔 추가 골을 기록했다.

호날두는 후반 17분 프리킥 상황에서 크로스를 살짝 넘기는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고, 후반 40분에도 골 지역 측면에서 옆구리를 때리는 등 시종 포르투갈의 공격을 주도했다.

이번 대회에서 호날두는 조별리그 헝가리전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경기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조별리그 2차전인 오스트리아전에선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 키커로 나섰지만 실축을 하기도 했다.

호날두의 침묵 탓에 포르투갈도 부진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무승부(3무)를 기록해 조 3위로 16강에 오른 포르투갈은 크로아티아와 16강에서는 연장 후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했고, 폴란드와 8강전에서는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이겼다.

그러나 호날두가 침묵을 깨면서 포르투갈의 사상 첫 유로 우승이라는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포르투갈이 결승에 오른 것은 2004년 대회 이후 처음이다. 당시 19세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었던 호날두는 2골·2도움을 기록하면서 포르투갈의 결승행에 앞장섰다. 그러나 그리스의 두터운 수비를 뚫지 못하고 0-1로 패했고 결승 종료 휘슬이 울리지 않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호날두는 2004년 결승전의 ‘통곡 사건’을 염두에 둔 듯 웨일스전 승리 후 “이번 유로 결승에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 동료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호날두와 웨일스의 가레스 베일의 대결은 호날두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연합뉴스

광주FC 김민혁 “인천 제압 다시한번”



내일 K리그 클래식 19R 홈경기

광주 FC의 김민혁이 좋은 기억을 살려 인천 골대를 겨냥한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9일 오후 7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2016 K리그 클래식 19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승점 23점(6승 5무 7패)으로 8위, 인천은 승점 18점(4승 6무 8패)으로 10위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수원 원정에서 2-0 완승을 거두며 무승 사슬을 끊었던 광주는 앞선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는 0-1로 아쉽게 패했다. 7대3의 볼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했

지만 포항의 수비 추구에 막혀 연승을 잇지 못했다. 7월을 패배로 연 광주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인천을 상대로 승리를 노린다.

광주 남기일 감독은 출근 “순위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팀들과의 승부가 정말 중요하다. 격차를 벌여야 잔류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는 지난 5월 인천 원정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김민혁의 결승골로 1-0의 극적승을 연출했다. 이 승리로 상승세를 탄 광주는 수원 FC까지 제압하면서 시즌 첫 3연승을 만들었다.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던 김민혁이 다시 한번 인천 골문을 노린다. 최근 광주 공격진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민혁은 경고 누적으로 포항전을 쉬어가면서 체력을 채워두었다.

베테랑 정조국은 리그 11호골에 도전한

다. 정조국은 지난 경기에서 특성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날카로운 슈팅으로 2차례 골대를 강타하며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프로 통산 100경기를 앞두고 있는 조성준의 각오도 남다르다. 조성준이 인천전에 나서면 100경기가 채워지는 만큼 승리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

인천의 상승세를 막는 게 관건이다.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던 인천은 최근 상주와 제주를 제물 삼아 2연승을 달리고 있다. 특히 제주와의 경기에서는 추가시간에만 두 골을 터트리는 집중력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의 분위기도 이에 못지않다. 탄탄해진 스쿼드로 수준급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팬들의 박수갈채를 끌어내고 있다. 자신감으로 무장한 광주가 인천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선보일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640일만에 ‘괴물’ 돌아온다

류현진 오늘 샌디에이고전 선발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기대와 우려 속에 21개월 만에 마운드에 돌아온다.

류현진은 8월 미국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등판은 2014년 10월 7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 이후 640일 만이다. 류현진은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통산 4승에 평균자책점 0.84로 무척 강했다. 여기에 홈에서 11승 7패, 평균자책점 2.93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5월 왼쪽 어깨를 수술하고 1년 이상 재활에 몰두한 류현진에게는 복귀전 결과가 중요하다. 이날 복귀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류현진의 구속이다. 류현진의 성공적인 재기 여부는 상당 부분 구속에 달려있다. /연합뉴스